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316
----------	------

발의연월일 : 2025. 2. 20.

발 의 자 : 남인순 · 정성호 · 오세희  
장종태 · 김영호 · 진선미  
김 윤 · 한정애 · 문진석  
정희용 · 정춘생 · 서영교  
임미애 · 정준호 · 임호선  
용혜인 · 이재강 · 신정훈  
전진숙 · 이훈기 · 이수진  
의원(2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살인죄에 대한 가중요건으로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존속살해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배우자를 살해하거나 부모가 어린 자녀를 해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여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배우자와 직계비속에 대한 살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일반 살인죄로 처벌되고 있음.

아울러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살해는 가족공동체의 붕괴를 초래하는 반인륜적인 범죄이며, 배우자 살해는 혼인 관계에 기초한 법적·도

덕적 책무를 원천적으로 파괴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배우자와 직계비속에 대한 살해죄를 신설하고 이를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처벌함으로써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0조).

법률 제 호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0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自己 또는 配偶者の 直系尊屬”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0조(살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살해)

③ 배우자를 살해한 자도 제2항의 형과 같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第250條(殺人, 尊屬殺害) ① (생략)</u></p> <p>②自己 또는 配偶者の 直系尊屬을 殺害한 者は 死刑, 無期 또는 7年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p> <p><u>&lt;신 설&gt;</u></p>	<p><u>제250조(살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살해) ① (현행과 같음)</u></p> <p>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p> <p>-----</p> <p>--.</p> <p>③ 배우자를 살해한 자도 제2항의 형과 같다.</p>